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정효경, 최주영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the Job-seeking Efficacy of a Dental Technology Student

Hyo-kyung Jung, Ju-young Choi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relation to the career barrier and job-seeking efficacy of dental technology students. It aims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NCS-based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Methods: The subject of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ental technology stude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program. For reliable verification, a significance level of $\alpha = .05$ was used and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had a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to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efficacy. It was found that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had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seeking efficiently and other variables such as difficulty in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lack of self-clarification, conflict with others in important positions, lack of job information, and lack of interest.

Conclusion :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improving job-seeking goals, job motivation, job search strength, job skills, and other related areas. If it appears difficult to overcome career barriers such as interpersonal difficulty, lack of self-clarification, conflict with other important people, lack of job information, and lack of interest, then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can be expected to enhance the job-seeking efficiency.

◉ **Key words:** Dental technology students, Career barriers, Basic occupational skills, Job-seeking efficacy, Mediating effect

* 본 논문은 2017년도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기술개발(C0510874)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임.

Corresponding author	Name	정 효 경	Tel.	053-320-1867	E-mail	hkjung@dhc.ac.kr	
	Address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15(태전동)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Received	2018. 9. 29		Revised	2018. 11. 30		Accepted	2018. 12. 21

I. 서론

통계청의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치인 125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생들은 성공적인 구직을 위해 목표나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인 구직기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노력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해 있다(Kim & Lee, 2017; Kim, 2017).

대학생들의 구직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을 들 수 있다.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의미하며 구직효능감은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을 구직활동과 연관시킨 것을 의미한다(Jun, 2013).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구직이라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직효능감이 무엇보다 중요 하지만 구직효능감은 개인이 자각하는 진로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구직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Kim, 2017; Shin, 2012).

한편 최근 국내 대학에서는 산업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대학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도입과 활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학들은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중에 있다(Kim, 2017; Huh, 2016).

치기공과 학생들 역시 의료 현장에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과 함께 직업기초능력을 교육받고 있다.

최근까지 직업기초능력의 개념 규명에 대한 기초 연구(Jyung, 1998), 직업기초능력 교육에 대한 요구와 인식에 관한 연구(Park, 2013; Lee, 2011),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Kang & Lee, 2003)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교육성과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구직효능감을 통해 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실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대학생들의 구직효능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진로장벽을 살펴보고,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NCS 기반의 교육과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한 D대학 치기공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4월 16일부터 2018년 5월 6일까지 총 3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총 195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195부의 설문 가운데 응답이 부적절한 18부를 제외한 177부(90.8%)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Table 2).

2. 연구도구

1) 진로장벽

이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서 Kim(2002)이 개발한 한국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를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어려움에 관한 문항이 5개, 자기 명확성 부족에 관한 문항이 7개, 경제적 어려움에 관한 문항이 5개,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 관한 문항이 5개, 직업정보 부족에 관한 문항이 5개, 나이 문제에 관한 문항이 4개, 신체적 열등감에 관한 문항이 4개, 흥미 부족에 관한 문항이 4개, 미래 불안에 관한 문항이 6개로 총 4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느끼고 있는 진로장벽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957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2) 직업기초능력

직업기초능력 척도는 김정아(2017), 이규녀(2017) 등이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인력공단이 제시한 직업기초능력의 수준을 근거로 직업기초능력 척도를 마련하였다.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자각하는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대인관계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뛰어난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919로 나타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Table 1).

3) 구직효능감

구직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병숙 등(2009)이 개발한 구직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등 구직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973으로 나타나 척도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자료 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성 파악을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진로장벽,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진로장벽과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진로장벽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하여 $\alpha = .05$ 의 유의수준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177명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55.4%)가 여자(44.6%)보다 많았고,

Table 1. Test of reliability and validity

	M±SD	Question	Cronbach' α
Carrier barriers	2.04±0.44	45	0.957
Difficulty with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2.02±0.59	5	0.844
Lack of self-clarification	2.21±0.54	7	0.870
Economic difficulties	2.18±0.58	5	0.814
Conflict with important others	1.76±0.57	5	0.897
Lack of job information	2.26±0.56	5	0.799
Age problem	1.91±0.70	4	0.883
Low body image	1.66±0.61	4	0.899
Lack of interest	2.20±0.53	4	0.600
Anxiety about the future	2.18±0.60	6	0.864
Basic occupational ability	3.29±0.56	19	0.919
Job-seeking efficiency	2.98±0.57	34	0.973

연령에서는 만 20대(40.7%), 만 21대~22대(36.7%), 만 23대(22.6%)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64.4%)이 3학년(31.1%)보다 많았으며, 치기공과를 선택한 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33.3%)로 높게 나타났다. 특정 직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직업기초능력을 가진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여부의 문답에서는 보통이다(48.6%), 상관있다(44.6%)로 나타났다(Table 2).

났다.

한편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가운데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등은 직업기초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도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Table 2.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Gender	Female	79(44.6)
	Male	98(55.4)
Year	Under 20	72(40.7)
	21~22	65(36.7)
	Over 23	40(22.6)
Grade	Grade 1	8(4.5)
	Grade 2	114(64.4)
	Grade 3	55(31.1)
Reason for choosing the major	High employment rate	59(33.3)
	Felt it was the right fit	50(28.2)
	Took grades into account	16(9.0)
	Recommended by a family member	33(18.6)
	Other	19(10.7)
Basic Occupational Skills-job prospects	Doesn't care	12(6.8)
	Cares moderately	86(48.6)
	Cares greatly	79(44.6)
Total		177(100.0)

2. 진로장벽,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장벽,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이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로장벽은 직업기초능력($r=-0.292$), 구직효능감($r=-0.240$)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직업기초능력과 구직효능감($r=0.541$)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부족,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3.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장벽이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로 진로장벽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3. Correlation Among Career Barriers, Basic Occupational Ability,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1	2	3	4	5	6	7	8	9	10	11	12
	Difficulty wi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Lack of Self-clarifications	Economic Difficulties	Conflict with Others	Lack of Job Information	Age Problem	Low Body Image	Lack of Interest	Anxiety about the Future	Carrier Barrier	Basic Occupational Ability	Job-seeking Efficiency
1	1											
2	.668***	1										
3	.441***	.438***	1									
4	.603***	.619***	.509***	1								
5	.576***	.618***	.368***	.559***	1							
6	.403***	.357***	.505***	.566***	.451***	1						
7	.581***	.527***	.478***	.622***	.412***	.590***	1					
8	.481***	.520***	.354***	.457***	.471***	.406***	.437***	1				
9	.571***	.578***	.474***	.586***	.693***	.521***	.479***	.476***	1			
10	.783***	.776***	.678***	.816***	.755***	.727***	.764***	.670***	.795***	1		
11	-.344***	-.312***	-.173*	-.155*	-.224**	-.131	-.314***	-.255**	-.089	-.292***	1	
12	-.213**	-.273***	-.021	-.150*	-.357***	-.017	-.138	-.322***	-.194*	-.240**	.541***	1

*p<0.05, **p<0.01, ***p<0.001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기초능력만이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는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이 -3.59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

Table 4.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B	SE	β	t	Goodness of fit	
						R ²	F
Level 1	Career barrier → basic occupational ability	-.373	.092	-.292	-4.036***	.085	16.292***
Level 2	Career barrier → job-seeking efficiency	-.310	.095	-.240	-3.260**	.058	10.627**
Level 3	Career barrier → job-seeking efficiency	-.116	.086	-.090	-1.347	.300	37.145***
	Basic occupational ability → job-seeking efficiency	.521	.067	.515	7.750***		

*p<0.05, **p<0.01, ***p<0.001

졌다.

다음으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각 하위요인과 구직효능감과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대인관계 어려움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대인관계 어려움이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로 대인관계 어려움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기초능력만이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이 완

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이 -4.1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자기 명확성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자기 명확성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자기 명확성 부족이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로 자기 명확성 부족이 구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기초능력만이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명확성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이 -3.76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ies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B	SE	β	t	Goodness of fit	
					R ²	F
Level 1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ies → Basic Occupational Ability	-.326	.067	-.344	-4.850***	.118	23.519***
Level 2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ies → Job-seeking Efficiency	-.204	.071	-.213	-2.870**	.045	8.237**
Level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fficulties → Job-seeking Efficiency ----- Basic Occupational Ability → Job-seeking Efficiency	-.029 .537	.065 .069	-.030 .531	-.438 7.805***	.294	35.997***

*p<0.05, **p<0.01, ***p<0.0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Lack of Self-clarification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B	SE	β	t	Goodness of fit	
						R ²	F
Level 1	Lack of self-clarification → basic occupational ability	-.325	.075	-.312	-4.338***	.097	18.819***
Level 2	Lack of self-clarification → job-seeking efficiency	-.289	.077	-.273	-3.746***	.075	14.036***
Level 3	Lack of self-clarification → job-seeking efficiency	-.122	.070	-.116	-1.734	.305	37.988***
	Basic occupational ability → job-seeking efficiency	.511	.067	.505	7.576***		

*p<0.05, **p<0.01, ***p<0.001

6.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은 매개변수인 직업기초능력과 종속변수인 구직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기초능력만이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이는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이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이 -2.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 직업정보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직업정보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직업정보 부족이 직업기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Table 7.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B	SE	β	t	Goodness of fit	
						R ²	F
Level 1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 basic occupational ability	-.153	.074	-.155	-2.070*	.024	4.286*
Level 2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 job-seeking efficiency	-.150	.075	-.150	-2.007*	.023	4.029*
Level 3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 job-seeking efficiency	-.068	.064	-.068	-1.057	.298	36.652***
	Basic occupational ability → job-seeking efficiency	.537	.065	.531	8.230***		

*p<0.05, **p<0.01, ***p<0.001

Table 8.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Lack of Job Information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B	SE	β	t	Goodness of fit	
						R ²	F
Level 1	Lack of job information → basic occupational ability	-.225	.074	-.224	-3.034**	.050	9.206**
Level 2	Lack of job information → job-seeking efficiency	-.364	.072	-.357	-5.042***	.127	25.425***
Level 3	Lack of job information → job-seeking efficiency	-.253	.064	-.248	-3.956***	.352	46.929***
	Basic occupational ability → job-seeking efficiency	.491	.064	.486	7.735***		

*p<0.05, **p<0.01, ***p<0.001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2단계로 직업정보 부족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정보 부족과 직업기초능력 모두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변수인 직업기초능력의 통제로 독립변수인 직업정보 부족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직업기초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

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이 -2.82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 흥미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

독립변수인 흥미 부족은 매개변수인 직업기초능력과 종속변수인 구직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흥미 부족과 직

Table 9. Mediating Effect of the Basic Occupational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ck of Interest and Job-seeking Efficiency

(N=177)

		B	SE	β	t	Goodness of fit	
						R ²	F
Level 1	Lack of interest → basic occupational ability	-.274	.078	-.255	-3.491**	.065	12.189**
Level 2	Lack of interest → job-seeking efficiency	-.352	.078	-.322	-4.491***	.104	20.171***
Level 3	Lack of interest → job-seeking efficiency	-.215	.070	-.196	-3.048**	.329	42.432***
	Basic occupational ability → job-seeking efficiency	.497	.065	.491	7.621***		

*p<0.05, **p<0.01, ***p<0.001

업기초능력 모두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9). 이때 매개변수인 직업기초능력의 통제로 독립변수인 흥미 부족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직업기초능력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검증을 위해 sobel검정을 실시한 결과 Z값이 -3.19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V. 고찰

이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학생들이 자각하고 있는 진로장벽, 직업기초능력, 구직효능감을 파악하고,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별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진로장벽은 구직효능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Jun(2013)의 연구 역시 대학생의 진로장벽요인이 구직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구직목표나 구직동기가 모호해지고, 그로 인해 구직에 대한 적극성이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직업기초능력은 구직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Kim & Lee(2017)의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이 구직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Kim(2017)의 연구에서는 직업기초능력 가운데 자기개발능력이 구직효능감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수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은 구직동기에,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는 구직강도에,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는 구직기술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은 대학생에 있어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주고, 뚜렷한 구직목표와 동기를 바탕으로 구직에 대한 적극성과 더불어 구직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은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진로장벽이 높을수록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등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Kim, 2016; You & Yoon, 2014), 진로장벽으로 인해 낮아진 구직효능감이 직업 기초 역량 강화를 통해 진로장벽을 극복하고 구직효능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다 (Kim, 2014)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진로장벽의 하위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의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 자기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능력, 자신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과의 의견조율능력, 진로결정에 필수적인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이 구직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특성은 직업기초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의 직업기초능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는 치기공과 학생들의 진로장벽을 보완하며 대학의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연구함으로써 NCS 기반의 교육과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등의 구직효능감 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치기공과 학생의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진로장벽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Z=-

- 3.595).
2. 대인관계 어려움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 기초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Z=-4.126$).
 3. 자기 명확성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 기초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Z=-3.768$).
 4.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은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Z=-2.006$).
 5. 직업정보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Z=-2.827$).
 6. 흥미 부족과 구직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직업기초능력은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Z=-3.192$).

즉 대학생의 구직목표, 구직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 등 구직효능감을 높이는데 있어 직업기초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 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흥미 부족 등의 진로장벽으로 인하여 구직효능감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직업기초능력의 향상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 Soc Psychol*, 51(6), 1173-1182, 1986.
- Huh YJ. A Study in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Based on the NCS Professional Basic Ability. *Kor J Gen Edu*, 10(1), 425-462, 2016.
- Jun CY.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s on Career Str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earching Efficacy-. *J Hum Resour Manag Res*, 20(1), 1-14, 2013.
- Jyung CY, Na SI, Seo WS, Song BK, Lee JS. A Study on Investigation of Key Competencies Needed for the Workforce. *J Vocat Edu Res*, 17(2), 15-38, 1998.
- Kang KJ, Lee GN.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l Education Curriculum for Cultivating Junior College Students Key Competencies. *J Vocat Edu Res*, 22(1), 79-113, 2003.
- Kim BS, Lee BB, Kim BI.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Volition and Degree to Pay Employment Preparation Cost and their Job-Seeking Efficacy. *J Career Edu Res*, 22(4), 39-61, 2009.
- Kim BS, Song SH, Choi JE. The Analysis on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for Job-seeking Efficacy of the Disabled. *J Kor Aca-Indus Coop Soc*, 15(6), 3587-3598, 2014.
- Kim EY. Convergence A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College Students Career Barrier Inventory. *Kor J Couns Psychother*, 14(1), 29-240, 2002.
- Kim JA. The Effects of Self-Awareness of Key Competencies on Job-Seeking Efficacy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ecretarial Studies. *Journal of Secretarial Studies*, 25(2), 57-80, 2017.
- Kim MH, Lee JK.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Perceived Occupational Basic Competencies, Career Decision Level, Job Searching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Junior College Students. *J Career Edu Res*, 30(3), 111-128, 2017.

- Kim MJ. Effect of Career barrier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Self-Regulation. *J Career Edu Re*, 29(2), 89-107, 2016.
- Lee KN, Park KM, Yi SJ. Analysis on Intellectual Property Personnel's Educational Need of Core Competencies of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J Intellect Prop*, 12(4), 171-202, 2017.
- Lee EH, Yoon SJ, Huh SH. Differences of Perception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to the Key Competencies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hrough A College Practice. *J Vocat Edu Res*, 30(4), 51-67, 2011.
- Park JH, Lee JP, Park YH. A Study on the Needs Assessment of Key Competencies from Industries for Graduates of Korea Polytechnic Colleges. *J Vocat Edu Res*, 32(1), 83-105, 2013.
- Shin JY, Park SS, Hyeong JE.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J Career Edu Res*, 25(1), 19-35, 2012.
- You SB, Yoon HM. Effects of Career Barriers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Students Career Self-Efficacy and Preparation Behavior. *Kor J Fam Soc Work*, 19(3), 405-421, 2014.
- March employment trend, 2018.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8.